

碩士學位論文

補語節의 「こと」「の」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吳 有 俶

2004年 12月

補語節의 「こと」 「の」 연구

指導教授 金勝漢

吳有俶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吳有俶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4年 12月

A Study on Clause of
Complement 「koto」 and 「no」

yoo-sook oh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han Ki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4. 12.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補語節の「こと」「の」 연구

吳有倣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指導教授 金勝漢

일본어 명사에는 실질명사에 대비되는 것으로 「형식명사」가 있다. 형식 명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무언가의 의미를 보충하는 단어와 함께 쓰여야만 문장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형식명사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こと」와 「の」를 들 수 있는데 「こと」와 「の」는 문장 내에서 선행절을 명사화하는 기능이 있다. 선행절을 명사화하는 「こと」와 「の」가 「{S(문장)+こと}+격조사」 「{S(문장)+の}+격조사」 형식으로 종속절에 쓰이는 표현을 이 연구에서는 「보어절」이라 칭하였다.

형식명사 「こと」와 「の」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고, 「S+こと」 「S+の」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식명사 「こと」와 「の」는 공통적으로 선행절 「S」의 내용을 명사화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우선, 「こと」는 「사항」 「사실」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こと」는 「~ことにする」 「~ことができる」 「~ことになる」 「~ことがある」 등 「する、できる、なる、ある」 등의 술어와 결합하여 관용적 표현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기도 하였다. 또, 「の」는 「사람, 사물」 「때, 시간」 「이유·원인」 「사항」 「사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S+こと」 「S+の」는 문장 내에서 「S」의 의미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졌다. 우선, 주절술어가 「考えつく」 「考える」처럼 「사고」를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와 「求める」 「決意する」처럼 「의지」를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 그리고 「勧める」 「決議する」처럼 「발화」를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는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되며 「S」가 「대략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되는 특성이 있고 「S+こと」만을 취하였다. 또, 주절술어가 「聞こえる」「見る」「見つける」「見つめる」처럼 「지각」을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와 「手伝う」「出会う」「見張る」「待ち受ける」처럼 「구체적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는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서로 같은 장면에서 성립되며 「S」가 「전체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되는 특성이 있고 「S+の」를 취하였다.

목 차

국문초록	i
I. 머리말	1
II. 「こと」 「の」의 의미와 용법	4
2.1. 「こと」의 의미와 용법	4
2.1.1. 선행절의 명사화	4
2.1.2. 「こと」의 의미	6
2.1.2.1. 사항	6
2.1.2.2. 사실	7
2.1.3. 「こと」관용구	9
2.2. 「の」의 의미와 용법	12
2.2.1. 선행절의 명사화	12
2.2.2. 「の」의 의미	14
2.2.2.1. 사람, 사물	14
2.2.2.2. 때, 시간	15
2.2.2.3. 이유·원인	16
2.2.2.4. 사항	17
2.2.2.5. 사실	18
III. 보어절의 「こと」 「の」	20
3.1. 「こと」보어절	20
3.1.1. 술어가 사고를 의미하는 경우	22
3.1.2. 술어가 의지를 의미하는 경우	22
3.1.3. 술어가 발화를 의미하는 경우	24
3.2. 「の」보어절	25
3.2.1. 술어가 지각을 의미하는 경우	26
3.2.2. 술어가 구체적 동작을 의미하는 경우	27
3.3. 「こと/の」보어절	29
IV. 맺음말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8

I. 머리말

일반적으로 명사라 하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또 명사는 어떤 현상의 실체 그 자체를 개념화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런 보통의 명사를 실질명사라 부르기도 하는데 일본어 명사에는 실질명사에 대비되는 것으로 「형식명사」¹⁾가 있다.

형식명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무언가 의미를 보충하는 단어와 함께 쓰여야만 문장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こと、の、もの、ところ、方」 같은 단어들 이 형식명사에 속한다. ²⁾

형식명사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こと」와 「の」를 들 수 있는데 「こと」와 「の」는 문장 내에서 비슷한 기능을 한다.

(1) 田中は美智子が結婚したことを知らなかった。

(2) 君は彼が勉強しているのをみたことがあるか。 ³⁾

(1)(2)에서처럼 「こと」와 「の」는 문장내에서 「S+こと」 「S+の」⁴⁾와

1) 日本語教育学会(1982), 『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108.

山田孝雄(1936)는 형식명사에 대해 「명사 중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뚜렷한 명칭은 붙이지 않았다. 형식명사라는 명칭은 松下大三郎에 의해 쓰여지기 시작했다.

2) 橋本進吉(1948), p.89. 佐久間 鼎(1991), pp.324.325. 松下大三郎(1977), p.82. 松下大三郎(1984), p.225 참조.

橋本는 「こと」를 형식명사로 「の」는 準体助詞로 분류하였다. 지금은, 橋本進吉가 조사로 분류하던 「の」도 松下大三郎를 시작으로 형식명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佐久間 鼎는 「の」를 「명사적 흡착어」라 표현하였다.

3) 益岡隆志 田窪行則 共著(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36

4) S는 문장을 의미한다.

같은 형식으로 쓰이는데, 이것이 형식명사 「こと」와 「の」의 중요한 기능이라 볼 수 있다. 「S+こと」 「S+の」 형태로 문장 내에서 종속절로 쓰이는 표현을 이 연구에서는 보어절 5) 이라 칭하겠다.

(3) 太郎は次郎に車を運転する {こと/*の} を要求した。

(菅野1997:73)

(4) 「ああ」と弟が呻くようにいう {*こと/の} をかれは聞いた。

(死者の奢り)・飼育, p.206)

(5) 僕は熱い臉を開き壁を見あげて、そこに 猟銃がない {こと/の} を確かめた。

(死者の奢り)・飼育, p.109)

보어절에서 「こと」와 「の」는 (3)에서처럼 「こと」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4)에서처럼 「の」만 가능한 경우, (5)에서처럼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S+こと」 「S+の」에서 「こと」와 「の」가 각각 어떤 의미와 용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S+こと」와 「S+の」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장이 「S+こと」혹은 「S+の」를 취할 때 그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보어절의 「こと」 「の」가 갖는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S+こと」와 「S+の」의 특성과 선택기준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5) 문장 내에서 「명사+격조사」 형태로 술어의 서술을 돕는 것을 「보어」라 한다. 어떤 문장에는 [「S+こと」 / 「S+の」 + 격조사] 형태로 주절 술어의 서술을 돕는 것이 있다. 절표현으로 주절 술어의 서술을 돕고 있으므로 「보어절」이라 할 수 있다. 国立国語研究所(1987), p.135 에서는 「補文標識」이라고도 하였다.

「こと」 「の」를 고찰하는데 필요한 예문은, 일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일본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신문 등에서 발췌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는 책·문형사전의 예문과 학자들이 인용하였던 것을 재인용하였다.



Ⅱ. 「こと」「の」의 의미와 용법

이 장에서는 보어절에서 「こと」「の」가 어떤 의미와 용법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こと」의 의미와 용법

2.1.1. 선행절의 명사화

보어절에서 「こと」는 선행절의 내용을 명사화한다.

- (6) 「そのパンフレットだれから手にいれたんだ、ぼくらが配ってることなぜ知ってる」と弟はきおいこんでいった。 (死者の奢り・飼育,p.208)
- (7) 薄暗いじめじめした所でニャーニャー泣いていたことだけは記憶している。
(吾輩は猫である)
- (8) この男は、びっくりして声は出したものの、そこがばか本性で、なぐられたことは気がつかず、おれたちのいることは知らないのだ。 (小6下,p.148)
- (9) 本田はこの大会の初代王者。 昨年はソルトレークシティー五輪の前に2位。今季は世界選手権のメダルとともに「4大陸選手権のタイトルを取り戻すこと」を目標の一つに挙げていた。 (毎日新聞 030215)
- (10) 相手の意向も確かめずに、わたしは、ただ親切のおし売りをし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そう思うと、断られた時に悲しい気持ちになったことが、はずかしく思われてきた。 (小5下,p.120)

(6)~(10)에서 「こと」의 명사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절의 내용만을 떼어내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종속절의 내용에 「こと」를 후접시켜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こと」의 명사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6) a ぼくらが配ってる。
b ぼくらが配ってること。
- (7) a 薄暗いじめじめした所でニャーニャー泣いていた。
b 薄暗いじめじめした所でニャーニャー泣いていたこと。
- (8) a おれたちのいる。
b おれたちのいること。
- (9) a 4大陸選手権のタイトルを取り戻す。
b 4大陸選手権のタイトルを取り戻すこと。
- (10) a 断られた時に悲しい気持ちになった。
b 断られた時に悲しい気持ちになったこと。

(6a)~(10a)는 각 문장이 「こと」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들 각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6a)는 「우리들이 나눠주고 있다」(7a)는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야옹야옹 울고 있었다」(8a)는 「우리들이 있다」(9a)는 「4대륙선수권 타이틀을 되찾다」(10a)는 「거절 당했을 때 슬퍼졌다」로, 문장의 의미가 동작이나 상태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こと」를 취한 (6b)~(10b)의 의미를 살펴보면 (6b)는 「우리
가 나눠주고 있다는 것」(7b)는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야옹야옹 울
고 있었던 일」(8b)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9b)는 「4대륙선수권

타이틀을 되찾는 일」(10b)는 「거절당했을 때 슬퍼졌던 일」 등이다. 즉, (6b)~(10b)와 같이 「こと」가 후접 되면서 각 문장의 의미가 「명사 상당 표현」⁶⁾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こと」는 선행절의 내용을 명사화하는 기능을 한다.

2.1.2. 「こと」의 의미

여기서는 보어절에서 형식명사 「こ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2.1.2.1. 사항

- (11) 二つの時を、作者が強く感じたことが表れるように、ろう読してみましょう。
(小6上,p.69)
- (12) まもなく外出からもどってきた父親でさえ、めんどくさそうに夕刊を広げながら、「うん、うん、なるほど」と、いっこうに興味のない顔つきをしたにすぎなかった。翌日、凡太は、級友にきのう見たことを語ったが、あまり信じてもらえなかった。
(小6下,p.104)
- (13) 私たちが考えたことや感じたことを人に伝えるためには、ことばを必要とします。
(小6下,p.57)
- (14) 自分で調べたり作ったりしたことを、みんなの前で発表しましょう。
(小5下,p.97)

6) 益岡隆志 外(1992), p.182

益岡 外(1992)는 「補足語가 「명사+격조사」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補足節(이 연구에서는 보어절)도 「명사상당표현+격조사」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명사상당표현에 명사의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이 형식명사 「こと」 「の」이다.」라고 설명하였다.

(11)~(14)에서 「こと」가 어떤 의미를 갖는 지는 선행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7) (11)에서는 「作者が強く感じた」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こと」가 「작자가 강하게 느낀 사항」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 (12)에서는 「凡太は、級友にきのう見たことを語ったが、」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こと」가 「凡太가 어제 관찰한 사항」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13)에서는 「私たちが考えた」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こと」가 「우리들이 생각한 사항」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 (14)에서는 「自分で調べたり作ったりした」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こと」가 「스스로 조사하고 지어낸 사항」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こと」가 (11)(12)에서는 「지각」(13)(14)에서는 「사고」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각」 「사고」한 사항의 대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11)~(14)에서처럼 「こと」의 의미가 「사항」일 때는 선행절과 관련한 사항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사항의 대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1.2.2. 사실

(15) エーミールがこの不思議なチョウ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聞くと、ぼくは
すっかり興奮してしまった。(中1,p.249)

7) 森田良行(1980),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p.147

- (16) 「イラクが正しいんだという誤ったメッセージを送らないよう、注意しなければならぬ」などと発言したことについて、 (朝日新聞 030217)
- (17) 昨年10月～12月期の実質経済成長率がプラス0.5%だったことについて竹中経済財政・金融相が『非常に順調だ』とニコニコ発表していたが、実感と離れている。 (朝日新聞 030217)
- (18) しかし、通訳が川岸よりかなり離れた草むらから、かれの靴の紐を拾いあげ、それが鋭利な刃もので切りとら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怒りの声をあげると、村の人間たちのあいだへ、再びおびえのまじったぎこちない気分が回復した。 (死者の奢り・飼育,p.179)

(15)~(18)에서도 「こと」가 어떤 의미를 갖는 지는 선행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15)에서는 「에이메일がこの不思議なチョウを持っている」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こと」가 「에이메일이 이상한 나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또, (16)에서는 「「イラクが正しいんだという誤ったメッセージを送らないよう、注意しなければならぬ」などと発言した」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こと」가 「「이라크가 옳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발언한 사실」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에서는 「昨年10月～12月期の実質経済成長率がプラス0.5%だった」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こと」가 「작년 10月～12月の 실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0.5%였던 사실」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8)에서는 「それ(通訳の靴の紐)が鋭利な刃もので切りとられている」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こと」가 「그것(통역인의 신발끈)이 예리한 칼로 잘려져 있었던 사실」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5)~(18)에서 알 수 있듯이 「こと」는 선행절에서 기술된 내용을 「사실」로서 나타낸다. 「こと」가 「사항」의 의미일 때는 선행절에

대체적인 사항의 내용이 기술되지 않지만 이처럼 「こと」가 「사실」의 의미일 때는 선행절에 사항의 대체적인 내용이 기술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1.3. 「こと」 관용구

「こと」는 「～ことに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になる」「～ことがある」등 「する、できる、なる、ある」 등의 술어와 결합하여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그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겠다.

(19) 一応、川のあたりを探してみることにする、手伝ってくれ。

(死者の奢り・飼育,p.179)

(20) 今日の夕方、涼しくなるまでこの村で休むことにしている。

(死者の奢り・飼育,p.173)

(21) 品物が発見されるまで、独立行動は許さないことにする。

(死者の奢り・飼育,p.181)

(22) 02年ワールドカップ(W杯)日本組織委員会は、国際サッカー連盟(FIFA)から50万ドルがこのほど支払われ、これを活用しJリーグの各会場に「W杯メモリアルシート」を設置することにした、と発表した。

(朝日新聞 030217)

(23) この話は聞かなかったことにしましょう。8)

「～ことにする」가 (19)에서는 「일단 강근처를 찾아보기로 한다」라는 의미이며 (20)에서는 「오늘 저녁 선선해질 때까지 이 마을에서

8) 文化庁(1978), 『外国人のための基本語用例辞典』, 大蔵省印刷局, p.364

쉬기로 정했다」라는 의미이다. 또, (21)에서는 「물건이 발견될 때까지 개인행동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며 (22)에서는 「2002년 월드컵 일본조직위원회는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50만 달러나 받아 이것을 활용하여 J리그 각회장에 「월드컵 기념시트」를 설치하기로 했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23)에서는 「이 이야기는 안들은 것으로 합시다」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ことにする」는 선행절의 내용에 대한 결심 혹은 결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동사의 현재형·과거형에 접속하여 쓰이며 「~ことにしている」「~ことにした」「~ことにしましょう」의 형태로 변화하기도 한다.

(24) そこでかれらは、なんの気がねもなしに、この遠来の客を見まもることが
できるというわけだった。 (死者の奢り・飼育,p.174)

(25) 日本人は、これから進駐軍に協力することなしには生きてゆくことが
できない。 (死者の奢り・飼育,p.183)

「~ことができる」가 (24)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멀리서 온 손님을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이며 (25)에서는 「일본인은 앞으로 점령군에게 협력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ことができる」는 선행절의 내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 서술한다. 동사의 현재형과 접속하여 쓰이며 (24)는 「~ことができる」로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25)는 「~ことができない」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26) あの靴は軍のものだ、軍の備品を盗んだり隠匿したりする奴がどういことになるかわかっているのか。 (死者の奢り・飼育,p.178)

(27) 大リーグ公式ホームページの日本語版が、ヤンキースの松井秀喜外野手の大リーグデビューに合わせて、本格的に開設されることになった。
(朝日新聞 030217)

「~ことになる」가 (26)에서는 「저 구두는 군대물품이다. 군대물품을 훔치거나 은닉하거나 하는 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냐)」라는 의미이며 (27)에서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일본어판이 양키즈의 松井秀喜선수의 외야수데뷰에 맞추어서 본격적으로 개설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ことになる」는 선행절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상태에 대해 서술한다. 동사의 현재형과 접속하여 쓰이며 「~ことになった」의 형태로 변화하기도 한다.

(28) 窓を開けて寝たことがある、と僕はいった。
(死者の奢り・飼育,P.64)

(29) わたしは、ミ-コのようにおもしろいねこを見たことがない。
(小6上,p.31)

(28)에서 「~ことがある」는 「창문을 열고 잔 적이 있다 (라고 나는 말했다)」라는 의미이며 (29)에서 「~ことがない」는 「나는 미코처럼 재미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ことがある」 「~ことがない」는 동사의 과거형과 접속하여 쓰이며 선행절의 내용에 대해 경험한 것인지 경험하지 않은 것인지를 서술한다.

- (30) そして黒人兵たちが、おなじ有色人種の日本人の青年にたいして示す
 疑惑はいったんそれに火をつけて敵意にまでもえあがらせると始末におえ
 ないことがある。 (死者の奢り・飼育,P.192)
- (31) そこには深い意味が隠され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中2,p.195)

「~ことがある」가 (30)에서는 「흑인 병사들이 같은 유색인종인 일본인 청년들에 대해 드러내는 의혹은 일단 그것에 불을 붙여서 적으로 불타게까지 만들면 수습이 안되는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며 (31)에서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ことがある」는 동사의 현재형과 접속하여 쓰이며 위험성을 내포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こと관용구」는 어떤 사항에 대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낼 뿐,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을 특정 짓지 않는다. 9) 즉, 해당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2.2. 「の」의 의미와 용법

2.2.1. 선행절의 명사화

9) 大島資生(1996), 「補文構造にあらわれる「こと」と「の」について」 『東京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第6号), p.53

보어절에서 「の」는 2.1.1.의 「こと」와 마찬가지로 선행절의 내용을 명사화한다.

(32) しらかばのてっぺんの、いちばん初めの緑色のえだにやっと登り着いた
時、アリオ-シャは、暑くなって、少し目まいのするのを感じた。

(小5上,p.96)

(33) そうすれば何も妻を殺したのが、特に自分の罪悪だとは云われぬ筈だ。
(芥川竜之介「疑惑」)

(34) 一年ぐらい経つと、お母さんがするのをみて、えものの取り方を覚えます。
(小1,p.114)

(35) そして僕は数人の外国兵が笑いざわめきながら僕の脛へ腕をかけるの
を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死者の奢り・飼育,p.149)

(36) 岡山県笠岡市にはカブトガニ保護センターができ、子供たちも一緒にな
って、カブトガニの生活を調べたり、人工でふやすのを手伝ったり、
住みかとなる海岸を守ったりする仕事に取り組んでいます。(小4,p.60)

(32)~(36)에서 종속절의 내용만을 떼어내어 「の」를 취하지 않은 경
우의 의미를 보면 (32)에서는 「아료샤는 더워서 좀 어지럽다」(33)
에서는 「부인을 죽였다」(34)에서는 「어머니가 한다」(35)에서는 많
은 외국병사들이 웃고 떠들면서 내 몸에 팔을 걸친다」(36)에서는
「투구계의 생활을 조사하기도 하고 인공으로 수를 늘인다」등으로,
문장의 의미가 동작이나 상태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32)~(36)에서 「の」가 후접된 종속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32)는 「아료샤는 더워서 좀 어지러운 것」(33)은 「부인을 죽인
것」(34)는 「어머니가 하는 것」(35)는 「많은 외국병사들이 웃고 떠
들면서 내 몸에 팔을 걸치는 것」(36)은 「투구계의 생활을 조사하기

도 하고 인공으로 수를 늘이는 것」 등이다. 즉, 「の」가 후접 되면서 각 문장의 의미가 「명사 상당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の」는 「こと」와 마찬가지로 선행절의 내용을 명사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の」는 그 자체가 어떤 어휘적 의미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선행절을 내장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 즉, 기능어적 역할만을 한다.¹⁰⁾

2.2.2. 「の」의 의미

(37) このセーターは小さいので、大きいのと替えてください。 ¹¹⁾

(37)처럼 일본어의 문장에서는 전후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어를 「の」로 바꾸기도 한다. (37)에서 「の」는 「스웨터」라는 단어를 대신하고 있다. 여기서 「の」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2.1. 사람, 사물

(38) 今度の戦争を独占するのは君たちだな。 (死者の奢り・飼育,p.25)

a 今度の戦争を独占する人は君たちだな。 ¹²⁾

10) 今泉喜一(2000), 『日本語構造伝達文法(上)』, 揺籃社, p.309

佐治圭三(1991), 『日本語の文法の研究』 ひつじ書房, p.194

今泉는 「特定の意味を付与せずに構造を実体化する。これが形式包含実体「の」の特徴であり、大きな利点である。」, 佐治는 「文を体言化するとき「の」は何の意味もそえない、言いかえれば機能的な意味だけをそえる」라고 설명하였다.

11) 益岡隆志 外(1992), p.160

12) (a)는, 문장에서 「の」를 직접 명사로 바꾸어 본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바꾸어 본 문장이 바른 문장인지에 대해서는 일본인 5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39) 「あんたたちの配ってあるくを読むと」と女はふいに真剣な稚い表情になってパンフレットをめくりながらいった。 (死者の奢り・飼育,p.211)

a 「あんたたちの配ってあるくパンフレットを読むと」と女はふいに真剣な稚い表情になってパンフレットをめくりながらいった。

(40) インド象には大きいのがいるよ。 (森田1980:153)

a インド象には大きい象がいるよ。

「の」가 (38)에서는 「人」를 대신하여 쓰였으며 (39)에서는 「パンフレット」를 대신하여 쓰였다. 그리고 (40)에서는 「象」를 대신하여 쓰였다. 명사 대신 쓰이는 「の」는 (38a)~(40a) 에서처럼 문장 내에서 명사로 직접 바꾸어 써도 상관없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の」를 쓴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の」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칭하는 명사대신에 쓰인다. 13)

2.2.2.2. 때, 시간

(41) 父が帰ってくるのはおそらく夕暮になってからだろう。

(死者の奢り・飼育,p.89)

a 父が帰ってくる時はおそらく夕暮になってからだろう。

(42) 夏道なら一時間で行ける三平峠の頂上に着いたのは, もう夕方の五時に近かった。

(小6下,p.54)

a 夏道なら一時間で行ける三平峠の頂上に着いた時間は, もう夕方の五時に近かった。

13) 森田良行(1980), 『基礎日本語2』角川書店, P.152

「の」가 (41)에서는 「때」를 대신하여 쓰였으며 (42)에서는 「시간」을 대신하여 쓰였다. (41)(42)에서 「の」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여 쓰였는지는 후행하는 절의 내용을 보면 알기 쉽다. (41)에서는 「おそらく夕暮になってからだろう」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の」가 「때」라는 단어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2)에서는 「もう夕方の五時に近かった」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の」가 「시간」이라는 단어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1a)(42a)에서처럼 「때, 시간」과 같은 명사 대신에 쓰인 「の」도 문장 내에서 직접 「の」가 의미하는 명사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처럼 「の」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때, 시간」이라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기도 한다.

2.2.2.3. 이유·원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3) 僕らの村で野天の火葬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のは、その夏の始まる前の長びいた梅雨、執拗に長い間降りつづけ洪水を日常的にした梅雨のためだった。 (死者の奢り・飼育,p.81)

a 僕らの村で野天の火葬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原因は、その夏の始まる前の長びいた梅雨、執拗に長い間降りつづけ洪水を日常的にした梅雨のためだった。

(44) アリさんが元気がないのは、失恋したからでしょう。

(日本語表現文型2,p.159)

a アリさんが元気がない理由は、失恋したからでしょう。

「の」가 (43)(44)에서는 「이유·원인」을 대신하여 쓰였다. (43)(44)에서 「の」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여 쓰였는지는 후행하는 절의 내

용을 보면 알기 쉽다. (43)에서는 「~のためだった」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の」가 「이유·원인」이라는 단어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4)에서도 「失恋したからでしょう」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の」가 「이유·원인」이라는 단어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3a)(44a)에서처럼 「이유·원인」과 같은 명사 대신에 쓰인 「の」도 문장 내에서 직접 「の」가 의미하는 명사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처럼 「の」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이유·원인」이라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기도 한다.

2.2.2.4. 사항

(45) 結局、ここで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正常さの感覚なんだ、と学生がいった。 (死者の奢り・飼育,p.65)

a 結局、ここで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正常さの感覚なんだ、と学生がいった。

(46) わらぐつの中に、神様だって。そんなの迷信でしょ、おばあちゃん。

(小5下,p.7)

a わらぐつの中に、神様だって。そんなこと迷信でしょ、おばあちゃん。

「の」가 (45)(46)에서는 「사항」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즉, 「こと」와 같은 의미이다. (45)(46)에서 「の」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문장을 해석해 보면 알기 쉽다. (45)는 「결국 여기서 회복해야하는 것은 정상적 감각이라고 학생이 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46)은 「짚신 속에 신이 있다니 그런 것 미신이잖아요. 할머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45a)(46a)에서처럼 「사항」과 같은 의미로 쓰인 「の」는 문장 내

에서 직접 「の」가 의미하는 단어로 바꾸어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の」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사항」이라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기도 한다.

2.2.2.5. 사실

(47) 結局は、いくら親切にしても、相手にわかってもらえないのは、悲しいことだと思った。 (小5下,p.119)

a 結局は、いくら親切にしても、相手にわかってもらえないという事実は、悲しいことだと思った。

(48) この男と一緒に仕事するのは、そんなに不愉快ではないだろう、と僕は軽い安堵の気持で思った。 (死者の奢り・飼育,p.16)

a この男と一緒に仕事するという事実は、そんなに不愉快ではないだろう、と僕は軽い安堵の気持で思った。

(49) 自分が失敗したのがよほど悔しいらしい。 (森田1980:153)

a 自分が失敗したという事実がよほど悔しいらしい。

「の」가 (47)~(49)에서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47)~(49)에서 「の」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문장을 해석해 보면 알기 쉽다. (47)은 「결국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이해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48)은 「이 남자와 함께 일을 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불쾌하지 않겠지라고 가벼운 안도감을 느끼며 생각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49)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분한 모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47a)~(49a)에서처럼 「사실」과 같은 의미로 쓰인 「の」도 문장

내에서 직접 「の」가 의미하는 단어로 바꾸어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の」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사실」이라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기도 한다.



Ⅲ. 보어절의 「こと」 「の」

일본어의 문장에서는 보어절 「S+こと」와 「S+の」중에서 「S+こと」만을 취하는 경우와 「S+の」만을 취하는 경우, 「S+こと」 「S+の」양쪽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50) 私は、まず第一に、祖国の自然や国土をたいせつにする {こと/*の} をあげたいのです。 (小6下,p.54)

(51) (いつも元気なよし子さんも学校ではうって変わって)休み時間でも、えんりょがちに、みんなの遊ぶ {*こと/の} をながめているだけです。 (小5上,p.5)

(52) この事件があつてから、洪作は小鳥のわなを作る {こと/の} をやめた。 (中,p.78)

(50)은 「S+こと」만을 취하는 경우이고 (51)은 「S+の」만을 취하는 경우이며 (52)는 「S+こと」 「S+の」양쪽을 취하는 경우이다.

이 장에서는 보어절 「S+こと」와 「S+の」의 특성을 살펴보고 어떤 기준에 따라 「こと」 「の」의 선택이 달라지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3.1. 「こと」 보어절

여기서는 「S+こと」의 특성을 살펴보고 어떤 기준에 따라 「S+こ

と」가 선택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53) 僕は黙って見ていた {こと/*の} を、恥ずかしいと思っています。

(小5上,p180)

* a 僕は黙って見ていたことを、その場で恥ずかしいと思っています。

(53)은 「S+こと」만을 취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53a)는 「S」의 의미 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발생장면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 「その場で」라는 단어를 삽입해 본 문장이다. 그 결과 (53)과는 달리 (53a)는 비문임을 알 수 있었다.

「その場で」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 비문임을 보아서 「S」의 의미 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은 같은 장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침묵한 채 보고 있었던 일」에 대해 「僕」는 다른 장면에서 그 일을 회상하며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될 때 「S+こと」만을 취한다. 따라서 「S+こと」만을 취할 수 있는 문장에서 「S+こと」에는 「S」에서 경험한 사항에 대해 분석·판단하여 얻은 결론인 「대략적인 사실내용」이 기술되는 특성이 있다. 14)

다음에서는 주절의 술어가 「사고」 「의지」 「발화」를 의미하는

14) 佐治圭三(1993), 「「の」の本質- 「こと」「もの」との対比から-」 『日本語学』 (vol. 12-10), 明治書院, p.9 참조.

동사인 경우를 예로 들어 문장이 「S+こと」 만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1.1. 술어가 사고를 의미하는 경우

(54) 用心深いカバを生け捕るのに、さんざん知恵をしぼった人間たちは、川の近くに特別のさくを作る {こと/*の} を考えついた。 (中3,p.16)

(55) かれらの顔を巨大な石の像にきざむ {こと/*の} を考え、そして、神の座である神殿の周りにならべました。 (小6,p.66)

(54)에서 「川の近くに特別のさくを作る」 하는 것과 사람들이 그 방법을 떠올려 낸 것은 다른 장면에서 발생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또, (55)에서 「かれらの顔を巨大な石の像にきざむ」 하는 것과 그런 방법을 생각한 것도 다른 장면에서 발생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주절술어로 「考えつく」 「考える」 와 같은 동사가 쓰인 경우 「S」 는 「考えつく」 「考える」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실천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S」 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될 때 「S」 는 분석·판단하여 얻은 결론인 「대략적인 사실내용」 으로 기술된다. 그러므로 (54)(55)와 같이 「S」 의 내용이 「대략적인 사실」 을 기술한 경우는 「S+こと」 만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3.1.2. 술어가 의지를 의미하는 경우

(56) また91年の湾岸戦争の際、大量の難民がトルコ国内に流れ込んだこともあり、イラク国内のトルコとの国境沿いに安全緩衝地帯を設け、自国軍を平和維持軍として派遣する {こと/*の} を求めている。¹⁵⁾

(読売新聞 030218)

(57) 高崎元署長から「男性をバトカーの後部座席に寝かせて保護していた」とする虚偽書類の作成を命じられていた浅野元地域課長は、直属の部下だった元主任の命令無視を知り、この事実も隠す {こと/*の} を決意する。
(毎日新聞 030215)

(56)에서 「이라크 국내에 토르코와의 안전 완충지대를 설치하여 자국군을 평화유지군으로서 파견하는 일」은 「求める」 하는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다. (57)에서도 「이 사실을 숨기는 일」은 「決意する」 하는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S」는 발생장면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발생 장면이 없다는 것은 「求める」 「決意する」 와 같은 장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56)에서 「イラク国内のトルコとの国境沿いに安全緩衝地帯を設け、自国軍を平和維持軍として派遣する」 하는 것은 「求める」 한 것과는 다른 장면에서 발생한 일이고 (57)에서도 「この事実も隠す」 하는 것은 「浅野元地域課長」이 「決意する」 한 것과는 다른 장면에서 발생한 일이다. 주절술어로 「求める」 「決意する」 와 같은 동사가 쓰인 경우 「S」는 「求める」 「決意する」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실천되는 일로서 발생장면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될 때 「S」는 분석·판단하여 얻은 결론인 「대략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된다. 그러므로 (56)(57)과 같이 「S」의 내용이 「대략적인 사실」을 기술한 경우는 「S+こと」만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15) 工藤真由美(1985), 「ノ、コトの使い分けと動詞の種類」 『国文学解釈と鑑賞』(50-3), 至文堂, p.47에서 工藤는 「求める」를 의지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3.1.3. 술어가 발화를 의미하는 경우 16)

(58) そして、終日看護婦につきまといわれ、手術することをすすめられていた。

(死者の奢り・飼育,p.69)

(59) 一方、国際原子力機関(IAEA)の理事会は北朝鮮の核問題を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付託する {*/の/こと} を決議した。

(朝日新聞 030214)

(58)에서 「수술하는 일」은 「勧める」하는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다. (59)에서도 「북한의 핵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탁하는 일」은 「決議する」하는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S」는 발생장면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발생 장면이 없다는 것은 「勧める」 「決議する」와 같은 장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58)에서 「手術する」하는 것은 「勧める」한 것과는 다른 장면에서 발생한 일이고 (59)에서 「北朝鮮の核問題を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付託する」하는 것도 「国際原子力機関(IAEA)の理事会」가 「決議する」한 것과는 다른 장면에서 발생할 일임을 알 수 있다. 주절술어로 「勧める」 「決議する」와 같은 동사가 쓰인 경우 「S」는 「勧める」 「決議する」하고 난 후에 비로소 발생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될 때 「S」는 분석·판단하여 얻은 결론인 「대략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된다. 그러므로 (58)(59)과 같이 「S」의 내용이 「대

16) 橋本修(1990), 「補文標識「の」「こと」の分布に関わる意味規則」 『国語学』(163), 国語学会 武蔵野書院., p.106 참조

「勧める」「決議する」는 발화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화를 의미하는 동사로 분류하였다.

략적인 사실」을 기술한 경우는 「S+こと」만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3.2. 「の」 보어절

여기서는 「S+の」의 특성을 살펴보고 어떤 기준에 따라 「S+の」가 선택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60) 君のかつての同輩が、日本人を河のなかに投げこんで溺死させたんだ、
ドブ川へやにわにほうりこんで、日本人がじたばたやるのを楽しんで
見たというわけだろ。 (死者の奢り・飼育,p.242)

a 日本人がじたばたやるのを見た。

*b 日本人がじたばたやるのを聞いた。

(61) まさみは、お母さんがもうなんべんか、この瓶に花をさしたのを知っています。

(小3,p.16)

a まさみは、お母さんがもうなんべんか、この瓶に花をさしたのを見た。

*b まさみは、お母さんがもうなんべんか、この瓶に花をさしたのを聞いた。

(60)(61)은 「S+の」를 취한 문장이다. 그리고 (60ab)(61ab)는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발생장면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 술어를 「見た」 「聞いた」로 바꾸어 본 문장이다. 그 결과 (60a)(61a)와는 달리 (60b)(61b)는 비문임을 알 수 있었다.

(60a)(61a)에서 「見た」라는 술어를 취한 경우 적격문이 됨을 보아서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은 같은 장면에서 발생한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60)에서 「君のかつての同輩」는 「일본인이 바둥바둥 하는 모습」을 같은 장면에서 직접 보면서 즐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61)에서도 「まさみ」는 「어머니가 몇 번인가 이 화병에 꽃을 꽂는 모습」을 같은 장면에서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같은 장면에서 성립될 때 「S+の」를 취한다. 따라서 「S+の」를 취할 수 있는 문장에서 「S+の」에는 「S」에서 경험한 사항이 「전체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되는 특성이 있다. 17)

다음에서는 주절의 술어가 「지각」 「구체적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를 예로 들어 문장이 「S+の」만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2.1. 술어가 지각을 의미하는 경우

(62) 姉が笑いながら言う {の/*こと} が聞こえました。 (小4,p.28)

(63) 盗みをしたという気持ちより、自分がつぶってしまった、美しい、珍しいちょう
 を見ているほうが、僕のこころを苦しめた。微妙なとび色がかかった羽の
 粉が、自分の指にくっついている {の/*こと} を見た。 (中,p.96)

(64) わたしは、一ぴきのみむしが、非常にあらい毛のはえている「さじばや
 なぎたんぼぼ」を食べている {の/*こと}を見つけました。

(小6上,p.27)

17) 佐治圭三(1993), p.9 참조.

佐治는 「「の」は、節の事態を現場のありさま、動きのままとらえる」라고 기술하였다.

(65) 少年は、父親が堂どうと胸をはって通訳へこたえようとしている {の/*こと}
を感動にみちて見つめた。 (死者の奢り・飼育,p.173)

(62)~(65)에서 각 문장의 행위주체와 「S」의 의미내용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62)에서 주절의 행위주체는 「姉が笑いながら言う」 하는 장면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 (63)에서도 「僕」는 「微妙なとび色がかった羽の粉が、自分の指にくっついている」 한 장면에서 나비를 직접 보고 있다. 또한, (64)에서도 「わたし」는 「一びきのみのみしが、非常にあらい毛のはえている「さじばやなぎたんぼぼ」を食べている」 한 장면에서 벌레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65)에서도 「少年」은 「父親が堂どうと胸をはって通訳へこたえようとしている」 하는 장면에서 감동하며 「父親」의 행동을 보고 있다.

즉, (62)~(65)에서 주절의 행위주체는 「S」의 의미내용과 같은 장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聞こえる」 「見る」 「見つける」 「見つめる」 등과 같은 지각행위는 행위주체가 「S」와 동일한 장면에서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같은 장면에서 성립될 때 「S」는 경험하고 관찰된 사항 그대로 즉, 「전체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된다. 그러므로 (62)~(65)와 같이 「S」의 내용이 「전체적인 사실」을 기술한 경우는 「S+の」만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3.2.2. 술어가 구체적 동작을 의미하는 경우

(66) 太郎は次郎が荷物を運ぶ {の/*こと} を手伝った。 (大島1996:55)

(67) わたしの家の近くまで帰ってくると、となりの変電所のどこからかわいて流れてくる、小さな流れにかかった石橋がある。その辺まで来ると、いつも、となりの若い主人が愛犬に引かれて帰ってくる {の/*こと} に出会う。

(小6下,p.123)

(68) あんたたちが行ったりきたりする {の/*こと} を見はってたのよ。

(死者の奢り・飼育,p.223)

(69) 僕は靴をはいた両足を前に突きだして少女が僕の前を通りすぎる {の/*こと} をまちうけた。

(死者の奢り・飼育,p.102)

(66)~(69)에서 각 문장의 행위주체와 「S」의 의미내용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66)에서 「太郎」는 「次郎が荷物を運ぶ」하는 장면에서 「次郎」를 「手伝う」하고 있다. (67)에서도 「わたし」는 「となりの若い主人が愛犬に引かれて帰ってくる」하는 장면에서 「となりの若い主人」와 「出会う」하고 있다. 또한, (68)에서도 주절의 행위주체는 「あんたたちが行ったりきたりする」하는 장면에서 「見はる」하고 있다. 그리고 (69)에서도 「僕」는 「少女が僕の前を通りすぎる」하는 장면에서 「まちうける」하고 있다.

즉, (66)~(69)에서도 주절의 행위주체는 「S」의 의미내용과 같은 장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手伝う」 「出会う」 「見張る」 「待ち受ける」 등과 같은 동작은 행위주체가 「S」와 동일한 장면에서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이 같은 장면에서 성립될 때 「S」는 경험하고 관찰된 사항 그대로 즉, 「전체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된다. 그러므로 (66)~(69)와 같이 「S」의 내용이 「전

체적인 사실」을 기술한 경우는 「S+の」만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3.3. 「こと/の」 보어절

여기서는 보어절 「S+の」를 「S+こと」로 「S+こと」를 「S+の」로 바꾸어 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S+の」를 「S+こと」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이다.

(70) 吾輩は、投げ出されてははい上がり、はい上がっては投げ出され、なんでも同じことを四、五編繰り返したのを記憶している。
(吾輩は猫である)

a 吾輩は、投げ出されてははい上がり、はい上がっては投げ出され、なんでも同じことを四、五編繰り返したこと를記憶している。

(71) まさみは、お母さんがもうなんべんか、この瓶に花をさしたのを知っています。

(小3,p.16)

a まさみは、お母さんがもうなんべんか、この瓶に花をさしたこと를知っています。

(70)은 「S+の」를 취한 문장이다. 이 경우 「吾輩」는 「投げ出されてははい上がり、はい上がっては投げ出され、なんでも同じことを四、五編繰り返した」라는 동작을 직접 체험하여 「S」의 이미지전체를 구체적으로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70)의 「S+の」는 「吾輩」가 체험한 시각적 이미지전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吾輩」는 「S」에 대해 (70)에서처럼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사실로써 기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70a)와 같이 「S」의 내용을 「대략적인 사실」로 함축시켜 기술하는 「S+こと」를 취해도 적격문이다.

이처럼 (70)은 (70a)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는데 (70a)는 (70)에 비해서 체험한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1)도 「S+の」를 취한 문장이다. 이 경우 「まさみ」는 「お母さんがもうなんべんか、この瓶に花をさした」라는 동작을 직접 보아서 「S」의 이미지전체를 구체적으로 뚜렷이 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71)의 「S+の」는 「まさみ」가 체험한 시각적 이미지전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まさみ」는 「S」에 대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다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71a)와 같이 「S」의 내용을 「대략적인 사실」로 함축시켜 기술하는 「S+こと」를 취해도 적격문이다.

이처럼 (71)은 (71a)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는데 (71a)는 (71)에 비해서 체험한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S+こと」를 「S+の」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이다.

(72) あんたは、最初、事務室で仕事の説明をしたのが俺でなくて、事務の男だったことを覚えているだろう? (死者の奢り・飼育,p.53)

a あんたは、最初、事務室で仕事の説明をしたのが俺でなくて、事務の男だったのを覚えているだろう?

(73) 十二人男たちは、ひとりのなかまをうっかり見失ってしまったことを、なげき悲しみました。 (小5上,p.56)

a 十二人男たちは、ひとりのなかまをうっかり見失ってしまったのを、なげき悲しみました。

(72)는 「S+こと」를 취한 문장이다. 이 경우 「あんた」는 「最初、事務室で仕事の説明をしたのが俺でなくて、事務の男だった」라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あんた」는 「S」에 대해 (72)에서처럼 대략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로써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72a)와 같이 「S」의 내용을 「전체적인 사실」로 기술하는 「S+の」를 취해도 적격문이다. 즉, (72a)에서 「あんた」는 「最初、事務室で仕事の説明をしたのが俺でなくて、事務の男だった」라는 동작을 직접 체험하여 「S」의 이미지전체를 구체적으로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72)는 (72a)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는데 (72a)는 (72)에 비해서 체험한 이미지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73)도 「S+こと」를 취한 문장이다. 이 경우 「十二人男たち」는 「ひとりのなかまをうっかり見失ってしまった」라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알고 슬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十二人男たち」는 「S」에 대해 (73)에서처럼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로써 체험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73a)와 같이 「S」의 내용을 「전체적인 사실」로 기술하는 「S+の」를 취해도 적격문이다. 즉, (73a)에서 「十二人男たち」는 「ひとりのなかまをうっかり見失ってしまった」라는 동작을 직접 체험하여 「S」의 이미지 전체를 구체적으로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73)은 (73a)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는데 (73a)는 (73)에 비해서 체험한 이미지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S+の」에는 주절의 행위주체가 체험한 「S」의 내용이 「전체적인 사실」로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こと」에는 「S」의 내용이 「대략적인 사실」로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형식명사 「こと」와 「の」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고 「S+こと」 「S+の」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식명사 「こと」와 「の」는 공통적으로 선행절 「S」의 내용을 명사화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こと」는 「사항」 「사실」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 「こと」는 「～ことにする」 「～ことができる」 「～ことになる」 「～ことがある」 등 「する、できる、なる、ある」 등의 술어와 결합하여 관용적 표현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の」는 「사람, 사물」 「때, 시간」 「이유·원인」 「사항」 「사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2) 주절술어가 「考えつく」 「考える」 처럼 「사고」를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은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되며 「S」가 「대략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되는 특성이 있었고 「S+こと」만을 취하였다.

3) 주절술어가 「求める」 「決意する」 처럼 「의지」를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 「S」의 의미내용은 「求める」 「決意する」하는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므로 발생장면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S」는 「求める」 「決意する」와 같은 장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S」가 「대략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되었으며 「S+こ

と」만을 취하였다.

4) 주절술어가 「勧める」「決議する」처럼 「발화」를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는 「S」가 「勧める」「決議する」하고 난 후에 비로소 발생 가능한 일이었다. 즉, 주절의 의미내용이 「S」와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성립되므로 「S」는 「대략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되었고 「S+こと」만을 취하였다.

5) 주절술어가 「聞こえる」「見る」「見つける」「見つめる」처럼 「지각」을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 「S」의 의미내용과 주절의 의미내용은 같은 장면에서 성립되며 「S」가 「전체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되는 특성이 있었고 「S+の」를 취하였다.



6) 주절술어가 「手伝う」「出会う」「見張る」「待ち受ける」처럼 「구체적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인 경우도 주절의 의미내용과 「S」의 의미내용이 같은 장면에서 성립되므로 「S」가 「전체적인 사실내용」으로 기술되었으며 「S+の」를 취하였다.

参 考 文 献

외국문헌

<예문출전>

芥川竜之介(昭和46), 疑惑, 筑摩書房.

大江健三郎(平成10), 死者の奢り・飼育, 新潮社.

筑波大学日本語教育委員会(1982), 『日本語表現文型1』, 凡人社.

筑波大学日本語教育委員会(1989), 『日本語表現文型2』, 凡人社.

中学校教科書(1992), 国語(1~3), 光村図書出版(株).

夏目漱石, 吾輩は猫である.

西尾実 監修(昭和48), 改訂標準国語(3~6), 世一社.

<단행본>



今泉喜一(2000), 『日本語構造伝達文法(上)』, 揺籃社.

国立国語研究所(1987), 『日本語文法(下)』, 大蔵省.

佐久間 鼎(1991), 『現代日本語法の研究』くろしお出版.

佐治圭三(1991), 『日本語の文法の研究』ひつじ書房.

寺村秀夫(1983),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 くろしお出版.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仁田義雄(1995), 『複文の研究, 上』, くろしお出版.

橋本進吉(1948), 『国語法研究』, 岩波書店.

益岡隆志 田窪行則 共著(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1997), 『複文 / 2』, くろしお出版.

松下大三郎(1977), 『標準日本口語法』, 勉誠社.

松下大三郎(1984), 『改善標準日本語文法』 勉誠社.

森田良行(1980),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森田良行(1980),『基礎日本語2』,角川書店.

宮島達夫・仁田義雄(1996),『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複文連文編』,くろしお出版.

清瀬義三郎則(1989),『日本語文法新論:派生文法序説』,桜楓社.

山田孝雄(1936),『日本文法学概論』宝文館出版.

<논문>

大島資生(1996),「補文構造にあらわれる「こと」と「の」について」『東京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第6号),東京大学留学生センター.

大嶋秀樹・加藤久雄(1999),「補文標識「の」「こと」の名詞性とその選択について」『奈良教育大学紀要』(第48巻第1号),奈良教育大学.

鎌田倫子(2001),「「ノとコトの使い分け」の現在」『日本語学』(vol.20-3),明治書院.

鎌田倫子(1998),「内容節をとる動詞のコトとノの選択規則-主動詞の意味分類と節の
時制から-」『日本語教育』(98号),日本語教育学会.

近藤泰弘(1997),「「の」「こと」による名詞節の性質-能格性の始点から」『国語学』
(190),国語学会.

金銀淑(1988),「文の名詞化要素「コト・ノ」の意味特性及び選択制限」,『国語学
研究』東北大学文学部.

工藤真由美(1985),「ノ、コトの使い分けと動詞の種類」『国文学解釈と鑑賞』
(50-3),至文堂.

久野暲(1973),「「こと」、「ノ」と「ト」」『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管野高志(1997),「「の」と「こと」の使い分けについての一考察-ヲ格の名詞節の
場合」『日本語と日本語教育』(第26号),慶応義塾大学日本語・日本文化教育センター.

佐治圭三(1993),「「の」の本質-「こと」「もの」との対比から-」『日本語学』
(vol.12-10),明治書院.

霜崎実(1983),「形式名詞「の」による代名用法の考察」『金田一春彦博士古稀
記念論文集第一巻国語学編』,三省堂.

- 常石希望(1996), 「『こと・もの・の』の基礎構造研究」, 檀国大学校論文集.
- 長友文子(1999), 「『の』による名詞省略について:日本人に対するアンケート調査を
基に」 『日本語教育』(101), 日本語教育学会.
- 橋本修(1990), 「補文標識『の』『こと』の分布に関わる意味規則」 『国語学』
(163), 国語学会 武蔵野書院.
- 坪本篤朗(1984), 「文の中に文を埋めるときコトとノはどこが違うのか」 『国文学解釈と
教材の研究』(29-6), 学灯社.

<사전>

- 国語学会編(1982), 『国語学大辞典』, 東京堂.
- 新村出(編)(1983), 『広辞苑』, 岩波書店.
- 日本語教育学会(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 文化庁(1978), 『外国人のための基本語用例辞典』, 大蔵省印刷局.
- 森田良行(1990), 『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 北原保雄外4人編(1985), 『日本文法事典』, 有精堂.

한국문헌

<논문>

- 김우정(2002), 「形式名詞『の・こと』の用法について-補文標識『の・こと』の使
い分けを中心に-」 仁荷大学校 教育大学院碩士論文.
- 梁石(1989), 「補文標識『の』『こと』に関する一考察:補文標識と主文述語との相
関關係を中心にして」, 韓國外國語大学校 教育大学院碩士論文.
- 趙佳姬(2000), 「形式名詞『の』に関する考察」, 釜山大学校大学院 碩士論文.

<Abstract>

A Study on Clause of Complement 「koto」 and 「no」

Yoo-sook Oh

Department of Japa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Seung-han Kim

The Japanese nouns have 「superficial nouns」 by contrast with substantial nouns. Superficial nouns can function only in case they are used together with meaningful words, for they are meaningless by themselve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perficial nouns are 「koto」 and 「no」 which can function as the change of precedent clause into nouns in sentences. The subordinate clauses are referred as complement clauses, which can change the nominal functions of 「koto」 and 「no」 in the form of 「{S+koto}+case postposition」, 「{S+no}+case postposition」.

This study tries to do research of the meaning and the usage of 「koto」 and 「no」. It also tries to analyze the functions of 「S+koto」 and 「S+no」 in sentences. This study can summarize as follows; Firstly, the superficial nouns, 「koto」 and 「no」 can change the content of precedent clauses into nouns. Above all, 「koto」 means 「matters」 and 「facts」. They also function as changing of the meaning when combined with predicative parts such as 「～kotonisuru」 「～kotogadekiru」 「～kotoninaru」 「～kotogaaru」 and 「suru,dekiru,naru,aru」. In addition, 「no」 has the meanings of 「person,things」 「time」 「reason·cause」 「matter」 and 「facts」.

「S+koto」 and 「S+no」 have different choice according to the meaning of 「S」 in sentences. Above all, in case main clauses means 「thought」 like 「ganngaetuku」 「ganngaeru」, and 「utterance」 like 「susumeru」 「ketugisuru」, the meaning of 「S」 and main clauses can function in different situation. And 「S」 has characteristics of 「rough contents of facts」 with 「S+koto」. In case the predicate in the main clauses means 「feelings」 like 「kikoeru」 「miru」 「mitukeru」 and 「mitumeru」, and means

「concrete movement」 like 「detudau」 「deau」 「miharu」 and 「matiukeru」, the meanings of 「S」 and the main clauses have the same situation with 「the whole contents of facts」 in the form of 「S+no」 .

